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금 모으기로 환란 넘고 IT강국 초석 닦아

■ 한국경제 구원투수 DJ

자유시장경제론 주창 자율시장경쟁 발판 마련 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식정보산업 업그레이드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였다. 1998년 2월 IMF 외환위기 당시 제1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금 모으기 운동, 긴급 재정 등 특

특히 김 전 대통령이 당시 단행한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권 건전화는 지난해 9월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 또 그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굴목 산업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민주적 시장경제 'DJ 노믹스'=김 전 대통령의 경제관과 경제철학은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과 달리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라는 일관된 흐름을 이어왔다.

그는 자신이 제창한 '대중경제론'에서 경제는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겨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되 실질적인 생산력인 노동자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일반화했던 개발독재시대에 그의 자유시장경제론은 반체제적이고 반정부적인 발상으로 기호한 것으로 여겨져, '대중경제론'은 1980년대 초까지 금서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1990년대 초 대중경제론은 민주적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어졌다. 그는 이때부터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배를 탔다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표방했고 대기업은 대규모 중화책 분야, 중소기업은 경쟁업과 서비스 분야를 맡아 우리 경제를 협력해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쌍두마차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시장경제 논리와 공정경쟁 원리의 실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지양했다.

그는 또 경제운용에 따른 폐해와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면 경제정책을 민간주도형으로 떠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철학 아래 경제정책을 운용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민주적 시장경제 원리'는 한국사회의 자율 경쟁과 시장 경제로 진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 모으기로 IMF 환란 극복=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진술한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믿고

다른 국민의 단합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고비마다 직접 나섰다. 당선 된 뒤 사흘 만에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 '면접 시험'까지 치렀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못 미더워하던 미국에 IMF 협약 이상의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부실 금융기관 퇴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필요할 땐 직접 나서 진솔하게 국민을 설득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금고야 비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른 국민의 적극 호응이 결정적이었다. 장풍 속에 모서 둔 돌반자·금가락지까지 들고 나온 금모으기 운동은 그 상징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가 재계·정부와 함께 모여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금기 사안이었던 정리해고 법제화를 수용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반 만인 1999년 8월15일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할 수 있었다.

◇굴목산업서 IT강국으로=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를 이뤘다면, 김 전 대통령은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굴목산업 중심에서 지식정보화 강국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어 정보대국의 토대를 튼튼히 하겠다"며 IT강국 의지를 피력했고, 임기 5년이 지나면서 정보대국의 터가 튼튼히 닦아졌다.

대통령 취임 당시인 1998년 1만3천800여 가구에 불과하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002년 말 1천4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인터넷 이용자 수도 163만명에서 2천627만명으로 5년새 16배 이상 증가했다. 또 취임 당시 693만대였던 PC보급대 수도 2천249만대로 늘었고, 이통전화 가입자 수는 1997년 691만명에서 3천200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IT 붐이 조성됐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벤처 육성 드라이브에 편승해 IT벤처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머니게임으로 변질되면서 '벤처 거품'이 만들어졌다가 2000년 하반기부터 꺼지면서 적지 않은 부유증을 날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금모으기 운동에서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인사들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외환위기 극복·고용 창출 도움... '닷컴 버블' 부작용도

■ 벤처산업과 DJ

벤처산업 육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전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인들을 육성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전신인 다산벤처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제정해 교수들의 창업을 허가하고, 벤처기업의 최소자본요건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벤처 문턱을 낮췄다.

창업 2년 내 벤처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줬다. 김 전 대통령의 벤처육성 정책은 우리나라가 조기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처육성 정책 성과는 경제 수치로 입증된다. 김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97년 IT산업을 포함한 국내 벤처산업 생산은 76조원에 불과했으나 김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2년 189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벤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8.6%에서 2002년 14.9%로 급증했다.

또 벤처직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2년 101만명에 그치던 것이 2002년 122만명으로 확대됐다. 김 전 대통령은 벤처산업 육성 등을 통해 IMF 외

환위기를 단기간 내 극복하는 지책을 거뒀지만 일부 부작용도 남겼다. 벤처육성 정책은 단기간 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른바 '닷컴 버블'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독약이 되고 말았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천명하고 각종 특혜조치를 쏟아냈지만 정작 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보다 머니게임에만 치중하며 벤처업계를 투전판으로 오염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벤처기업확인제도 한계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버텨지 유망 기업으로 행세하게 만들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연필뉴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요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팅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해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금"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인동상일부동산. 010-223-1140, 0210 011-0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영수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립니다.